

---

碩士學位請求論文

Kant에 있어서 카테고리의  
先驗的 演繹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許 正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洪 一 心

1994年 2月

Kant에 있어서 카테고리의  
先驗的 演繹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許 正 勳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11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洪 一 心



洪一心の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장 위석 교수님

審査委員 허 정훈 교수님

審査委員 양 방주 교수님



〈抄 錄〉

## Kant에 있어서 카테고리의 先驗的 演繹에 관한 研究

洪 一 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指導教授 許 正 勳

Kant에 있어서 認識이란 經驗에 그 기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하는 주관적인 認識形式에 의해 질서있게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의 「純粹理性批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여 先天的 綜合判斷은 가능한가 였다. 종래의 經驗論과 合理論이 보여 주는 認識 方法으로는 認識의 必然성과 普遍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Kant는 數學的 認識과 自然科學的 認識의 예를 들어 必然성과 普遍성을 갖춘 先天的 綜合判斷의 可能性을 제시한다. 대상들에 대한 經驗 可能性으로의 先天的 條件으로는 感性和 悟성을 들 수 있다. 즉 인간의 認識은 感性和 悟性の 協동작용으로 가능한 것이며, 感性和 悟性是 각각 그 속에 直觀形式과 카테고리라는 先天的인 認識形式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데 感性에 의해 대상이 주어지고 悟性이 그것을 사유한다는 Kant의 사상은 카테고리의 客觀的 妥當性 문제에 봉착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Kant는 「先驗的 演繹」이라 이름하고 있으며, 여기서 二元論에서 一元論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해 대상이 주어질 때 이미 直觀뿐 아니라 悟性の 작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直觀에 의해서는 카오스적인 한

갖된 多樣이 주어질 뿐이며 이것을 종합하는 작용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構想力의 作用이며 構想力의 綜合은 先驗的 統覺이라는 先天的 規則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작용이 바로 카테고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悟性의 客觀的 妥當性은 證명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證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의 經驗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圖式論이다.

圖式이란 算出的 構想力의 산물로서, 일방으로는 感性的이며 타방으로는 知性的인 성질을 지니고 있어 感性和 悟性의 매개를 가능하게 하며 결국 카테고리의 圖式化를 통해 現象適用을 타당하게 하여준다.

이렇게 하여 Kant가 우려하였던 카테고리의 客觀的 妥當性문제와 經驗에의 실제적용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 目 次

〈抄 錄〉

I. 序 論 .....	1
II. Kant의 認識論의 主觀主義 .....	4
1. 先天的 綜合判斷의 可能性 .....	4
2. Kant 認識論의 二元的 性格 .....	8
III. 카테고리의 客觀的 妥當性 .....	15
1. 先驗的 觀念論 .....	15
2. 構想力의 綜合作用과 三種의 綜合 .....	18
3. 先驗的 統覺과 構想力 .....	27
IV. 構想力과 圖式 .....	32
1. 先驗的 構想力과 圖式 .....	32
2. 圖式과 形象 .....	35
3. 範疇의 圖式化 .....	38
V. 結 論 .....	44
VI. 參考文獻 .....	46
Abstract .....	49

## I. 序 論

Kant에 있어서 認識이란 經驗에 그 기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하는 주관적인 先天的 認識形式에 의해 질서있게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제까지 우리의 認識은 대상에 준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상에 대하여 先天的으로 우리의 認識을 확장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만들어 내려는 인간의 시도는 무너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상이 認識에 準據한다고 하는 가정이 더 形而上學的 과제에 효력이 있지 않나하는 점을 시험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대상에 관한 어떤 확정을 하는 先天的 認識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같은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Kant는 形而上學과 自然科學에서 조차 의심받을 수 밖에 없었던 合理論과 經驗論의 난점을 극복하고 數學과 自然科學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다고 여겨졌던 形而上學的 認識까지 확실성을 定礎 하였으며 形而上學的 가능성을 정립시켰다. 이를 두고 Kant는 스스로의 認識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의 그것과 비유하여 코페르니쿠스적 轉回라고 한다.

그의 「純粹理性批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여 先天的 綜合判斷이 가능한가?」였다. 종래의 經驗論과 合理論의 認識方法으로는 認識의 必然性和 普遍性を 보여 줄 수가 없었다. 따라서 Kant는 數學的 認識과 自然科學的 認識의 예를 들어 必然性和 普遍성을 갖춘 先天的 綜合判斷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形而上學에도 도입하고자 하였다. Kant가 제시하는 대상들에 대한 경험 가능성의 先天的 條件으로는 感性和 悟性を 들 수 있다.

Kant에 의하면 「인간의 認識에는 두개의 즐기가 있고, 이 두 즐기는 아마도 하나의 공통적인, 그러나 우리에게도 알려지지도 않은 뿌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며, 感性和 悟性이 바로 그것이다」<sup>1)</sup>. 따라서 그의 認識論은 感性和 悟性の 협동작용을 통한 認識의 성립이라는 二元論에서 부터 출발한다. 즉 感性에 의하여 대상이 주어지고 悟性에 의하여 思惟되어 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Kant의 주된 문제인 先天的 綜合判斷의 가능성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두 인식능력에 의해 해명된다. 先天的 綜合判斷의 성립을 위해서는 感性和 悟性속에 각각 先天的인 認識形式이 존재해야 하는데 Kant는 이를 直觀形式과 카테고리로 명명한다. 바로 이러한 認識形式이 무엇이며 그런 형식을 통해 얻어진 認識이 어떻게 客觀的 妥當性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이 Kant 인식론의 주된 문제이다. 전자의 문제는 「純粹理性批判」에서 感性論과 카테고리의 形而上學的 演繹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후자의 문제에 대한 探究는 先驗的 演繹이라는 이름 하에 수행 되었다.

그런데 Kant의 출발점인 이원론에 따르면 時間과 空間속에서 직관되는 대상은 그 대상의 가능성의 先天的 制約, 즉 직관형식을 포함함으로써 時, 空間에 있어서의 종합은 客觀的 妥當性을 가질 수 있는데 반하여 悟性の 객관적 타당성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悟性の 기능 없이도 現象은 直觀에 의해 주어져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直觀에 의해서 주어진 대상이 전적으로 直觀과 독립되어 있는 悟性の 카테고리에 의하여 어떻게 종합되어 지는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Kant는 이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결국 二元論에서 一元論으로의 수정을 통해 카테

1) I. Kant(1956),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Verlag, hamburg, S. B. 29.

고리의 客觀的 妥當性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Kant는 많은 개념중 經驗的이 아닌 모든 經驗에서 독립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先天的으로 대상과 상관할 수 있는가의 설명을 「先驗的인 演繹」이라고 하여 이를 통해 사고의 주관적 조건의 客觀的 妥當性을 해결한다. 즉 Kant에 의하면 直觀에 의해 대상이 주어져 悟性이 이를 思惟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주어질 때 이미 카테고리의 작용이 直觀의 작용과 함께 포함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純粹理性批判」의 초판과 재판을 토대로 認識에 관한 二元論에서 一元論으로의 변화 과정인 先驗的 演繹에서 카테고리의 客觀的 妥當性을 위한 構想力에 의한 綜合作用과 覺知, 再現, 再認識의 綜合 그리고 統覺의 근원적인 종합적 통일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카테고리 체계가 어떻게 우리 經驗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명시하기 위해 感性和 悟性의 매개체로서의 圖式의 問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Kant의 認識論的 主觀主義

### 1. 先天的 綜合判斷의 可能性

Kant에 의하면 우리의 認識에는 經驗에 의거한 經驗的 認識과 經驗으로 부터 독립된 先天的 認識이 있다<sup>2)</sup>. 이 두 종류의 認識중 經驗的 認識은 대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必然性を 보여 주지 못하며, 또 지금까지 관찰한 한에서는 이렇다는 것을 알려 주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普遍性を 보여 주지 못한다. 결국 經驗的 認識은 蓋然性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先天的 認識이다. 이와 관련하여 Kant는 主語概念과 述語概念의 關係에 의해 모든 판단을 分析判斷과 綜合判斷으로 나누어 설명한다<sup>3)</sup>. 分析判斷은 주어개념속에 술어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판단이며, 經驗으로부터 독립되어 先天的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普遍성과 必然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主語概念의 분석을 통해 이미 그 속에 사고되어 있는 것을 部分概念으로 분해함에 불과하므로, 概念을 판명하게 하기 위한 「解明判斷」(Erläuterungsurteil) (B.11)<sup>4)</sup>이지 우리의 認識을 확장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綜合判斷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의 속성을 주어에 부과함으로써 판단을 확장하기 때문에 「擴張判斷」(Erweiterungsurteil)(B.11)<sup>5)</sup>이라

2) *Ibid.*, S. B. 2.

3) *Ibid.*, S. B. 10.

4) *Ibid.*, S. B. 11.

5) 김영례(1991). "칸트에 있어서 선험적 인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p. 27.

고 한다. 그런데 綜合判斷은 經驗에 의해서만 자신을 확장 시키는 經驗的 判斷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언제나 綜合判斷을 내릴 수 있고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普遍性和 必然性を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Kant는 普遍性和 必然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허한 분석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 주는 綜合判斷, 즉 先天的 綜合判斷의 가능성을 문제삼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 先天的 綜合判斷은 可能한가?」<sup>6)</sup>라는 문제가 Kant의 「純粹理性批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종래의 合理論과 經驗論이 보여주는 認識方法으로는 認識의 必然性和 普遍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Kant는 우리의 認識이 經驗과 함께 시작하기는 하되, 모든 것이 經驗으로부터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그의 독자적 입장을 내세우게 된다. 즉 모든 感官의 印象과 知覺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純粹한 認識인 先天的 認識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先天的'이란 時間的으로 선행하는 認識이란 의미가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독립된'이란 의미로써 이는 경험에서 독립하여 대상속에 주관 스스로가 투입됨으로써 우리가 認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先天的인 認識은 경험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나 경험적인 요소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 認識으로 이는 論理的, 客觀的 認識이라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절대적으로 확실한 認識, 즉 必然性和 普遍성을 가진 認識이 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先天的 認識이든 그 인식은 必然性和 普遍 妥當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Kant의 思惟法의 독자적인 변혁인 實驗的 方法<sup>7)</sup>이다. '實驗的 方法'이란, 우리

6) Kant(1956), *op. cit.*, S. B. 19.

7) 한단석(1983), 「칸트 철학사상의 이해」, 양영각, p. 76.

가 理性에 의해 미리 생각한 것을 대상에 투입하여 보고 그 결과에 의해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경험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부분까지 해당된다. 결국 Kant는 절대적으로 普遍性和 必然성을 가진 先天的 認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러한 認識形式의 투입으로 形而上學의 객관적 타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면 先天的 綜合判斷은 실재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Kant는 數學的 認識과 自然科學的 認識에서 이를 증명한다. 예컨대 「7+5=12」<sup>8)</sup>라는 판단이나 「모든 물체는 무겁다」<sup>9)</sup> 「物體界에 모든 변화에 있어 물질의 量은 일정 불변하다」<sup>10)</sup>등의 판단은 普遍性和 必然성을 포함하는 先天的 綜合判斷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判斷들은 술어가 주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감각-경험을 記述하는 모든 判斷에서 논리적으로 독립하여 있는 判斷인 것이다. 이렇듯 數學과 自然科學에 있어서는 先天的 綜合判斷이 가능하다. Kant는 數學과 自然科學이 왜 확실한 학문일 수 있는가를 탐구하여 그 결과 先天的 綜合判斷의 가능성을 발견해 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같은 방법에 의해서 形而上學을 수립하고자 했다.

우선 Kant는 形而上學에 있어서 先天的 綜合判斷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으로서의 必然性和 普遍성을 제공하는 先天的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인간의 認識能力에서 찾고 있다. Kant에 의하면 인간은 直觀能力으로서의 感性和 思惟能力으로서의 悟性이라는 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인식은 이 두 능력의 상호 협동작용으로 성립된다는 것이다.<sup>11)</sup>

8) Kant(1956), *op. cit.*, S. B. 15.

9) *Ibid.*, S. B. 18.

10) *Ibid.*, S. B. 18.

11) *Ibid.*, S. B. 33.

즉 感性에 의해서 대상이 주어지고, 悟性에 의해서는 주어진 대상을 思惟한다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感性이 없이는 어떠한 대상도 주어질 수 없고, 悟性이 없이는 사유할 수가 없게 된다. Kant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인식은 마음의 두 근원에서 생겨난다. 그 첫째의 근원은 表象을 수용하는 능력(印象의 受容性)이며, 둘째의 근원은 이러한 表象을 통해서 대상을 認識하는 능력(概念의 自發性)이다. 直觀과 概念은 우리의 모든 認識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와 상응하는 直觀을 가지지 않은 概念이나, 또 概念을 결여한 直觀도 다함께 認識이 될 수 없다.」<sup>13)</sup>고 했다. 따라서 內容이 없는 사상은 공허하며, 概念이 없는 直觀은 맹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을 감성화 하는 일(개념의 대상을 직관중에서 부여하는 일)이 필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직관을 이성화 하는 일(직관을 개념안에 포섭하는 일)도 필연적이다.<sup>14)</sup> 이와 같은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우리 認識은 대상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Kant는 대상이 우리 認識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정함으로써 先天的 認識의 가능성을 설명했고 이를 天體運動의 설명에 있어 「모든 星群이 관찰자의 주위를 회전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天體運動의 설명이 성공 못한 이후로, 관찰자를 돌도록 하고 도리어 별들을 고정시켰을 때 설명이 더 잘 된다」<sup>15)</sup>라고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사고방식의 전환에 비추고 있다. 이 말은 모든 실재가 인간의 마음에 환원되어 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認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미리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 확정 지운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상을 認識할 때 대상의 선행 조건으로서 대상을 時間, 空間적으로 認識

12) *Ibid.*, S. B. 29.

13) *Ibid.*, S. B.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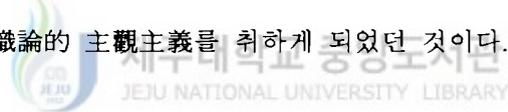
14) *Ibid.*, S. B. 75.

15) *Ibid.*, S. B. XVI~XVII.

되기 때문에 時間, 空間的인 것이다. 時間, 空間은 인간의 認識方式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성격을 띠지만, 모든 대상이 空間을 채우고 있으며 時間的인 방식으로 지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 때문에 必然性和 普遍妥當性이 확보되는 것이다.<sup>16)</sup>

Kant의 이러한 사고 방식의 轉回는 대상에 대한 認識態度的 변경이며 단순히 가정만 하자고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고에 의거한 實驗的 方法으로서 認識論的 主觀主義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듯 Kant는 認識의 성립을 感性和 悟性的 상호 협동으로 설명하였으며 先天的 綜合判斷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자 속에 先天的인 認識形式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이 주관적인 認識形式에 의하여 질서있게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Kant는 感性的 先天的인 形式을 時間과 空間이라는 直觀形式, 悟性的 先天的 概念을 카테고리, 즉 範疇라고 일컫고 있다. Kant는 感性和 悟性的 先天的 認識形式인 直觀과 카테고리를 투입함으로써 확실한 認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 하였으며 이러한 實驗的 方法을 통해 認識論的 主觀主義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Kant 認識論의 二元的 性格

認識의 성립은 두개의 보완적인 조건, 즉 直觀의 認識能力인 感性和 概念의 능력인 悟性的 合作품에 의해 가능하다고 Kant는 말했다. Kant는 그의 「先驗的 感性論」에서, 「認識이 대상에 關係하는 方式과 手段이 어떠한 간에 구하고 있는 것은 直觀이다. 直觀은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

16) 하영석(1987), “비판적 실험철학의 과제”, 「철학연구」, 제24집, p. 17.

그러나 이런 일은 대상이 어떤 방식에서 심성을 觸發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觸發(刺戟)되는 방식을 통해서 表象을 얻는 능력, 즉 受容성을 感性이라고 한다. 따라서 感性에 의해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感性만이 直觀을 우리에게 준다」<sup>17)</sup>라고 했다. 이와같이 直觀이란 「現象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대상에 관계하는 것」<sup>18)</sup>이며 이는 「先天的 직관으로서 일체의 경험 이전 즉 개개의 지각에 선행하여 개념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sup>19)</sup>이다. 따라서 모든 사고는 직접적으로 直觀에 關係하거나 간접적으로도 결국은 直觀에 關係할 수 밖에 없으며 感性없이 認識 성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感性의 先天的 원리인 時間과 空間은 무엇인가? 時間과 空間은 우리의 感性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物自體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感性속에 先天的으로 존재하는 形式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각은 이 感性의 直觀形式에 의해 질서가 주어지고 거기에 비로소 經驗的인 直觀이 성립한다. Kant는 時間과 空間이 先天的임을 形而上學的의 '究明과 '先驗的 究明'에서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다<sup>20)</sup>.

먼저 空間에 대한 形而上學的 究明을 살펴보자. 空間이란 대상의 형체, 크기, 相互關係의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外的 經驗에서 추상한 것이 아니며, 經驗的인 것을 가능케 하며 그것의 기초에 누워있는 필연적이며 先天的인 表象이다<sup>21)</sup>. 뿐만 아니라, 空間은 概念이 아니라 純粹直觀이다<sup>22)</sup>.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空間만을 表象할 수 있으며 많은 수의 空間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17) Kant(1956), *op. cit.*, S. B. 33.

18) *Ibid.*, S. B. 47.

19) *Ibid.*, S. B. 47.

20) *Ibid.*, S. A.22-25, S. B. 37~41.

21) *Ibid.*, S. B. 38.

22) *Ibid.*, S. B. 39.

동일한 空間의 부분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空間은 무한의 量으로 생각된다<sup>23)</sup>.

이상이 形而上學的 究明이라면 先驗的 究明은 어떤 것인가? Kant는 先天的이고 綜合的 學問인 幾何學의 성질을 들어 空間이 先天的 直觀임을 설명한다. 幾何學의 認識이 성립하려면 先天的 直觀에서 필연적 확실성에 의해 가능한데 空間이 概念이 아니고 先天的 直觀인 것은 기하학의 綜合判斷에 속하며 必然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空間은 우리에게 외적 대상으로서 출현할 수 있는 모든 물에 관하여서 實在性(客觀的 妥當性)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sup>24)</sup>.

Kant는 時間에 대해서도 같은 논증을 하고 있다. 形而上學的 究明에서 그는 「時間은 결코 經驗에서 추상된 經驗的 概念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각에 있어서 時間 한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25)</sup>라고 말한다. 그리고 「時間에서 現象을 제거해 볼 수는 있지만, 現象에서 時間을 제거할 수는 없다」<sup>26)</sup>. 이러한 時間 일반에 대한 可能性은 그것이 先天的 必然성을 가졌다는 데서 유래한다.

時間이 經驗이 아닌 純粹直觀인 것은 여러가지 상이한 時間이 동일한 時間의 부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時間 역시 空間과 같이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時間에 대한 形而上學的 究明이며, 先驗的 究明으로는 「時間은 일방 위만을 가지며, 상이한 時間은 동시적이 아니고 계시적」<sup>27)</sup>이라는 것 등이 증명되는데 이것은 時間이 先天的 概念임을 설명하는 것들이다.

---

23) *Ibid.*, S. B. 40.

24) 한단석(1983), 「Kant철학사상의 이해」, 양영각, p.102

25) Kant(1956), *op. cit.*, S. B. 46.

26) *Ibid.*, S. B. 46.

27) *Ibid.*, S. B. 48.

이것을 종합해 보면, 時間과 空間은 概念이 아니라 直觀으로 무한한 성질의 것들이며 사물이 없을 때라도 존재가능한 원리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점은 다른 모든 것과 空間的으로 관련되어 있고, 모든 사건은 다른 모든 사건과 時間的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空間과 時間은 經驗에 선행하는 것으로 客觀的 妥當性을 가진 純粹直觀 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 Kant는 現象으로서의 대상의 根低에 우리 感性을 촉발하여 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物自體를 상정하고 있다. 즉 우리가 認識할 수 있는 것은 物自體가 아닌 現象으로 物自體란 우리 認識밖에 존재하는 것이며 결코 어떤 카테고리 대해서도 사유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Kant는 우리의 感性을 촉발하여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物自體라고 하였다<sup>28)</sup>. 만일 우리의 感性을 촉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밖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은 이미 空間的 구성을 지닌 것으로, 그렇다면 物自體는 자기 모순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여러가지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認識이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物(=現象)과 認識이 불가능한 物自體로서의 물의 구분은 Kant 비판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주관에 있어서의 대상이란 주관에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하여 구성되며, 주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 즉 주관에 대하여 드러난 現象인 것이다.<sup>29)</sup> 따라서 Kant의 認識論的 主觀主義에 따르면 現象과 物自體의 구별은 필연적이며, 現象으로서의 자연계는 인과법칙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sup>30)</sup>

28) 칸트는 물자체에서 명백하게 언급하지는 않았고, 현상에 대해서만 '경험적인 직관의 무규정적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29) Kant(1956), *op. cit.*, B.XXVII.

30) 김영례(1991), 전제서, p. 25.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의 認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時間과 空間이라는 先天的 直觀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認識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상을 사유하기 위한 自發性的의 능력인 悟性이 필요한 것이다.

Kant는 「先驗的 分析論」에서 悟性의 先驗的 概念을 카테고리라 칭하고 그 範疇의 완전한 목록 작성을 시도한다<sup>31)</sup>. Kant는 몇가지 원칙에 의해 概念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概念은 純粹하여 非經驗的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概念은 기본적인 것으로 派生的이거나 複合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 셋째로 概念은 直觀과 感性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悟性과 思惟에 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넷째로는 概念의 표는 완전한 것으로 純粹 悟性概念의 전 범위를 유감 없이 포섭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 등이다<sup>32)</sup>.

悟性의 기능은 이러한 概念의 통일을 하는 것이며 이를 어떤 대상에 대한 間接的 認識, 즉 判斷이라고 한다. 따라서 悟性의 모든 작용은 判斷의 能力이라 볼 수 있으며 悟性의 기능을 바탕으로 할때 先天的이라고 할 수 있다. Kant는 이와같은 悟性의 기능을 바탕으로 先天的 概念으로서의 카테고리를 판단표를 근거로 해서 도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12개의 카테고리를 만들게 된다. 만일 悟性속에 先天的 概念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先天的 直觀에 의하여 주어진 대상을 기초로 하여 悟性의 概念을 만들어 낸다면, 거기엔 분명히 先天的 綜合判斷이 성립하지만 그 先天的 綜合判斷은 결코 客觀的 妥當性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Kant가 純粹悟性概念인 카테고리를 생각해낸 것은 판단에 객관성을 주기 위한 것이며 객관적 綜合判斷의 가능성을 성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

---

31) Kant(1956), *op. cit.*, S. B. 106.

32) 최일운(1965), "순수이성비판의 비판", 「철학연구」, 제2집, p. 63.

다. 이것은 또한 흄의 因果律의 概念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흄에 의하면 대상간의 인과적 관계는 결코 直觀에 의해 알 수가 없으며 주어지는 한것된 인상을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因果律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Kant는 이러한 흄의 인과율에 대한 비판에 의해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 인과관계란 대상간의 필연적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인과율이라는 개념이 悟性속에 先天的 概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先天的 悟性概念에 의해 先天的 綜合判斷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Kant는 「先驗的 分析論」에서 悟성에 있어서의 先天的인 概念을 究明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Kant의 認識論的 主觀主義의 대강을 서술하였는데 形而上學의 學的 정립을 위해 先天的 認識을 중시하려는 전제는 대단한 思考方式의 轉回였다. 그리고 Kant가 認識論的 主觀主義 사상에 의해 이룩한 최대의 성과는 우리의 認識은 결코 物自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現象을 파악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現象으로서의 대상은 우리 주관의 先天的 形式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역시 우리 또한 대상에 대하여 先天的 認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認識論的 主觀主義인데, 여기에서 Kant가 끌어내려 했던 것은 現象으로서의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先天的으로 認識할 수 있는가를 定礎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認識論的 主觀主義의 대상이 유도되었던 것이다. 즉 선천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감성에 의해 대상이 주어지고 오성이 그것을 사유하므로써 가능하다. 우선 感性에 의한 直觀이 인식되어지려면 表象으로서의 이 直觀을 對象으로서의 그 무엇과 관계시켜 對象을 直觀에 의해 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對象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概念이 對象에 따른다고 규정하거나 혹은 對象이 概念에 따른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 두 전제중 Kant는 후자를 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Kant는 直觀과 概念을 선천적인 것으로 간

주하며 對象은 感性의 純粹直觀인 空間, 時間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한다. 이 無規定的인 對象은 悟性에 의해 사유되는데 이때 사유는 概念을 통한 認識을 뜻한다. 이것이 Kant의 인식에 대한 이원론적 입장으로 「先驗的 感性論」과 「카테고리의 形而上學的 演繹」에서 그 주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 III. 카테고리의 客觀的 妥當性

#### 1. 先驗的 觀念論

지금까지의 내용중에서 우리는 感性和 悟性이라는 두 개의 근원적인 인식능력에 의해 인식이 이루어지는 Kant의 이원적 측면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원적 인식론에 의해 普遍性和 必然성을 갖춘 先天的 綜合判斷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Kant의 이러한 사상은 우리의 인식이 미치는 범위를 현상의 세계에 한정시켜 物自體의 세계는 인식 불가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우리의 주관적인 認識形式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일 뿐, 우리 주관에서 독립하여 있는 대상 그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現象과 物自體의 구별은 Kant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Kant가 物自體라는 개념을 가정한 것은 자기속에 모순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物自體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우리는 物自體를 認識하고 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Kant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物自體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이 세계를 전적으로 주관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主觀的인 觀念論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物自體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게되는 고민에 쌓이게 된다. 여기서 Kant는 자신이 입장이 觀念論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외계의 대상에 대한 경험적 실재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物自體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物自體란 외계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 세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E 윌커슨같은 학자는 Kant가 버클리주의자라고 주장한다.<sup>33)</sup> 그 이유로 윌커슨은 문헌적인 考察을 해볼 때 초판에서 특히 <先驗的感性론>에서 버클리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오해 받을만한 구절이 꽤 많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주관이 제거되어 버리면, 아니면 모든 감각능력의 주관적 성질만이라도 제거되어 버리면 空間과 時間속에 있는 대상들의 성질 전부와 관계, 더 나아가 空間과 時間 자체 까지도 사라질 것이다」는 말 역시 버클리의 말은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Kant는 데카르트의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종종 버클리의 어조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윌커슨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Kant는 자신의 사상이 主觀的 觀念論이라고 오해 받을까 바 再版에서 「觀念論 論駁」을 추가시켜 자신을 觀念論者라 부르는 것을 반박한다.

그는 자신의 觀念論을 先驗的 觀念論이라 부름으로써 물리적 사물의 존재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인 데카르트의 蓋然的 觀念論과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한갓 加工物에 불과하다는 버클리의 獨斷的 觀念論을 質料的 觀念論이라 하여 先驗的 觀念論과 구별한다.

그러나 Kant가 「觀念論 論駁」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윌커슨의 말과는 달리 우리가 先驗的 觀念論은 취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몇가지의 그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만일 現象이 物自體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그것의 本性에 대해 어떤것도 認識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 어떤 참된 명제도 진술할 수 없다. 둘째, 만일 時間과 空間이 우리로 부터 독립하여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時, 空間은 자기 모순적인 관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時, 空間내의 모

---

33) 배학수(1987),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서광사, p. 239.

든 것을 한갓 가상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셋째, 물리적 대상이 한갓 現象이 아니라면 모든 科學과 常識的 命題가 전제하는 범주가 그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만일 물리적 대상이 先驗적으로 실재적이라고 가정된다면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음에 틀림없다.<sup>34)</sup> 여기서 Kant가 설명하려 했던 것은, 나 자신의 존재라는 것의 의식은 나의 밖의 事物의 存在라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모든 根據는 그것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한에서 表象들이요, 그것이 表象인 한, 表象과는 다른 항구적인 것을 요구한다.」<sup>35)</sup> 이 항구적인 것의 지각은 나의 밖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내 밖의 사물의 한갓 表象에 의해서 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시간중에서의 나의 존재의 규정은 내가 나의 외부에서 지각하는 현실적 사물의 존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시간중에서의 나의 존재의 의식은 이 시간규정의 가능성의 조건의 의식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간중에서의 나의 존재의 의식은 이 時間規定의 조건인 내 밖의 사물의 존재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즉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意識은 동시에 내 밖의 다른 사물의 존재에 대한 直接的 認識이다.<sup>35)</sup> 이 말은 우리에게서 독립되어 있는 空間的 사물인 자연계를 관념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그것이 物自體와 구별되는 現象이라는 것이다. 「先驗的 感性論」에서 Kant는 우리의 주관에서 독립된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物自體라고 규정하였는데, 「先驗的 分析論」에서는 이와같은 외적 대상, 즉 자연계를 현상이라 규정하고 物自體의 영역을 축소 시켰을 뿐 아니라 物自體의 존재조차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悟性이 가지고 있는 先天的 認識은 경험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감성적 직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

34) 김상봉(1985), 「순수이성비판입문」, 훈겨레, p. 188.

35) Kant, *op. cit.*, S. B. XXXIX의 원주.

의미한 것이 된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려면 개념은 感性化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지 오성에 의해서는 현상의 영역을 넘어선 카테고리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Kant에 의하면 物自體의 세계는 모순을 지닌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성적 직관만을 직관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直觀方式이 존재한다면 카테고리에 의한 物自體의 인식은 가능할지도 모른다<sup>36)</sup>. 따라서 Kant의 認識論은 物自體와 現象의 구별에 의해 우리는 物自體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現象에 대한 認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으며 現象에 대한 認識만을 통해서도 확실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여 현상에 대한 인식의 객관적 타당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構想力에 의한 綜合作用과 統覺의 統一作用이다.

## 2. 構想力의 綜合作用과 三種의 綜合

앞서 살펴보건데 인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感性에 의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直觀形式과 오성의 카테고리가 필요함을 알았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看過해 버린 것이다. 즉 「時空의 概念에 관해서는, 先天的인 認識 形式으로서의 時空 概念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대상과 關係 하는가 또는 모든 經驗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과의 종합적인 認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sup>37)</sup> 다시 말해서 「時空은 現象으로서의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純粹한 直觀이었고 이로 인해 시공중의 종합은 客觀的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sup>38)</sup> 그런데 이에 반하여 「悟性的 카테고리

36) 한단석(1983), 전제서, p. 136.

37) Kant(1956), *op. cit.*, S. B. 121.

38) *Ibid.*, S. B. 121.

대상이 直觀에게 주어지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이 반드시 悟性의 기능과 關係해야 하는 것이 없이도, 대상을 확실히 現象할 수 있다. 즉 悟性은 대상의 先天的 제약을 포함하지 않는다」<sup>39)</sup>.

여기서 Kant는 또 한번의 난문에 부딪치게 된다. 어떻게 사고의 주관적 조건이 客觀的 妥當性을 갖느냐, 즉 대상의 모든 認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주느냐 하는 곤란이다. 왜냐하면 「現象은 悟性의 기능 없이도 直觀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40)</sup> 直觀에 의해 주어진 대상이, 전적으로 직관과 독립되어 있는 悟性에 의해 종합되어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先天的 概念의 客觀的 妥當性의 문제를 Kant는 先驗的 演繹 (transzendente Deduktion)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것의 문제 해결을 꾀하였다. 여기서 先驗的 演繹이란 「先驗的 개념이 어떻게 하여 대상과 관계할 수 있는가의 방식의 설명」<sup>41)</sup>으로 Kant는 이 개념을 「개념의 경험과 경험에 대한 반성에 의해서 어떻게 하여 얻어졌는가의 방식을 설명해 보이는」<sup>42)</sup> 經驗的 演繹과 구별한다. 演繹이란 말은 法律用語이며, 사실문제에 대하여 권리문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카테고리가 어떻게 의식되어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先天的으로 대상과 관계되어 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곧 先驗的 演繹인 것이다. 그의 해결 방향은 앞서 보았던 인식의 二元的 過程에서 一元的 過程으로의 轉回였다. Kant의 설명으로는 종합적 表象과 그 대상이 합치하는 경우는 대상이 表象을 가능하게 하던가, 또는 表象만이 대상을 가능하게 하던가 두가지 경우인데, 전자의 관계는 경험적이어서 先天的이지 못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表象이 대상에

39) *Ibid.*, S. B. 122.

40) *Ibid.*, S. B. 122.

41) *Ibid.*, S. B.117.

42) *Ibid.*, S. B.117.

대하여 先天的인 규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悟性이 先天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대상이 認識되는 장면에서 先天的 表象이 작용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sup>43)</sup> 따라서 Kant는 直觀에 의해 대상이 주어지고 이를 悟性에 의해 思惟한다는 사고에서 대상이 주어질 때 이미 直觀뿐 아니라 悟性의 작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다.

直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단지 카오스적인 한갓된 多樣이며 이것만으로 認識이 성립되기는 힘들다. 認識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갓된 多樣的 綜合이 필요한데 感官은 多樣을 포함할 뿐 그것을 종합 통일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종합이 필요하며 이 종합작용을 가능케하는데 悟性의 카테고리 작용한다는 것이다. 二元論에서 一元論으로의 수정을 통해 Kant는, 직관적 표상은 直觀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의 종합작용에 의한 통일이 있을 후에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생각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것은 카테고리가 先天的이면서도 대상에 대해서 客觀的 妥當性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카테고리의 작용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자.

Kant는 初版의 先驗的 演繹에서 우리의 認識源泉으로 간주되는 근원적인 정신의 소질로 세가지를 들고 있다. 「感官, 構想力, 統覺이 그것이다., 이 세 능력에 기본해서 1. 感官에 의해서 先天的으로 多樣을 概觀하고 2. 이런 多樣을 構想力에 의하여 綜合하며, 3. 이 綜合을 最後의 根源的 統覺에 의해서 統一된다. 이 세능력 전부 각각 經驗的으로 사용되는 이외에 先驗的으로 사용된다」<sup>44)</sup>. 즉 感官이 직관할 무렵에 그것은 다양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感官에 概觀作用이

43) 한단석(1983), 전제서, p. 118.

44) Kant(1956), *op. cit.*, S. A. 94.

부여되며 이 개관작용에는 항상 종합작용이 대응하게 된다. 수용성은 자발성과 결합해서만 認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카오스적인 多樣을 종합하는 能動的이며 生産的인 종합으로서 構想力(想像力, Einbildungskraft)의 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構想力은 「카테고리의 先驗的 演繹」의 문제해결을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認識의 算出은 多樣한 表象을 결합하는 종합에 의해 가능하다. 종합은 주관의 生産的인 혹은 자발적인 능력에 속하는데 바로 이 「綜合一般」이 構想力의 作用이라 볼 수 있다. Kant에 의하면 「構想力은 마음의 불가결이면서도 맹목적인(無意識的인) 기능이다. 이런 技能 없이는 어떠한 認識도 가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능을 우리는 드물게만 意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을 概念化합은 悟性이 소유하는 기능이다. 悟性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認識을 획득한다.」<sup>45)</sup> 즉 認識의 성립이 가능하려면 直觀의 多樣을 하나의 形象으로 만들어내는 構想力의 作用이 필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構想力은 算出的, 生産的이며 이는 후에 서술하겠지만 先驗的 統覺의 先天的 規則에 의해 이루어진다.

앞에서 우리는 感官은 多樣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동적인 概觀作用만을 가질 뿐 결코 주어진 多樣을 종합하지 못함을 알았다. 따라서 構想力의 능동적인 綜合作用이 필요한데 이러한 종합은 모든 認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三種의 綜合을 필연적으로 제공한다.

- 1) 直觀에 있어서의 覺知의 綜合
- 2) 構想力에 있어서의 再現의 綜合
- 3) 概念에 있어서의 再認識의 綜合

---

45) *Ibid.*, S. A. 118.

따라서 이러한 三種의 綜合을 통해 우리는 認識의 성립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三種의 구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Kant가 1가지가 아니라 3가지 綜合을 말했다고 단정 지으면 곤란하다. 이것들은 하나의 綜合에 대한 여러 樣相을 표시한데 지나지 않으며 서로 다른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Kant는 직관에 의해서 주어진 대상을 綜合통일함에 있어 우리의 表象은 外的인 것이든 內的인 것이든 모두 내관의 형식적 제약, 즉 時間에 따라 이루어 진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우리의 認識은 모두 內官의 형식적 제약, 즉 時間에 속하며 時間속에서 질서 지워지고 결합되어서 상호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sup>46)</sup>. 따라서 時間속에서 認識의 성립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Kant의 주장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가. 直觀에서의 覺知의 綜合(Synthesis der Apprehension in der Anschauung)

우리가 認識하고 있는 모든 表象은 내감의 형식적 조건, 즉 時間에 종속되고 있으며 時間속에서 배치되고 결합되며 서로 관계를 맺는다. 이와 같이 매우 당연하게도 Kant는 우리가 時間 속에서 多樣을 意識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多樣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사고 중에서 결합할 수 없다면 多樣이 多樣으로서 意識될 수 조차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多樣의 통일이 필요하다. 覺知의 綜合<sup>47)</sup>이란 直觀에 의해서 주어진 多樣을 개관하고 이 개관한 것을 總括하는 일이다<sup>48)</sup>. 즉 直觀에 의하여 주어진 多樣이 곧 表象에 있어서의 多樣으로서 意識되어지려면 우선 마음속에 繼起하는 直觀의 多樣을 훑어봄이 필요하고

46) *Ibid.*, S. A. 99.

47) *Ibid.*, S. A. 99.

48) *Ibid.*, S. A. 99.

이것을 개관해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9)</sup>. 이렇게 함으로써 直觀의 대상이 성립되는 것이다.

覺知의 이러한 종합은 經驗的 直觀뿐 아니라 經驗에서 오지 않는 先天的인 純粹 直觀에 관해서도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覺知의 종합이 없으면 우리는 空間의 先天的 表象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sup>50)</sup> 이리하여 우리는 直觀的 表象을 성립시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마음의 자발적인 작용인 覺知의 純粹 종합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覺知의 綜合에서의 構想力의 역할은 무엇일까? Kant에 의하면 「構想力이 知覺들에 직접 미치는 작용이 覺知다」<sup>51)</sup>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知覺이란 現象이 意識과 결합되었을 때의 상태를 말한다. 어느 現象이라도 多樣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양각색의 知覺들은 마음속에 날날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각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스로는 그런 결합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多樣을 종합하는 활동적인 능력인 構想力에 의해 지각의 결합을 가져올 수 있다. 말하자면 構想力은 直觀의 多樣을 하나의 形象으로 종합하는 것으로써 우선 印象을 그 활동속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곧 覺知인 것이다<sup>52)</sup>.

나. 構想力에 있어서의 再現의 綜合(Synthesis der Reproduktion in der Einbildung)

繼起的인 直觀의 多樣을 개관하여 종합하는 覺知의 綜合이 가능하려면 계기적으로 주어지는 印象을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주어지는 多樣들은 계속 사라져서 아무런 統一的 表象

49) *Ibid.*, S. A. 99.

50) *Ibid.*, S. A. 99.

51) *Ibid.*, S. A. 120.

52) *Ibid.*, S. A. 120.

도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再現의 作用이 바로 構想力의 作用인 것이다.

Kant는 構想力을 「對象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도 直觀에서 表象하는 능력」<sup>53)</sup>으로 보고 있다. 즉 심성이 한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 옮겨간 경우에도 다른 지각에서 먼저의 지각을 상기하여 대상을 表象하는 능력이 바로 構想力의 再現的 능력인 것이다. 이때의 契機하는 表象들의 연상은 經驗的이며 恒久的인 合規則的인 隋伴에 의해 나타나야 하며, 만일 어떠한 규칙도 없이 무질서하게 再現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연상도 생기지 않으며 우리의 認識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覺知의 綜合은 再現의 綜合과 불가분의 결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覺知의 綜合이 '지금'의 상을 주려고 하면 그것은 개관된 現前하는 多樣을 그때 그때에 파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Kant에 있어서 構想力의 再現의 綜合은 經驗的일 뿐만 아니라 先天的이기도 하다. 그리고 覺知의 綜合이 모든 認識 일반을 가능케 하는 先驗的인 근거를 형성하기 때문에 構想力의 再現의 綜合은 經驗 可能性의 根底에 있는 先驗的인 綜合이라 볼 수 있다<sup>54)</sup>. 이와 관련하여 Kant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제 내가 하나의 선을 머리 속에서 꺼내거나, 오늘의 정오에서 내일의 정오까지의 時間을 생각 하거나 혹은 어떤 數만을 表象하여 보거나 할 때에, 나는 우선 이런 多樣한 表象들의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생각 중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선행하는 表象(선의 처음 부분, 혹은 순차로 表象된 단위)을 잊어버리고, 다음의 表象으로 전진해 감에 따라 先行 表象을 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의(완전한) 전체 表象은 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진술한 사고종의 어느 사고도 발현할 수가 없고, 시공이라는 가장 純粹

---

53) *Ibid.*, S. A. 121.

54) *Ibid.*, S. A. 102.

하고도 기본적인 根本 表象도 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sup>55)</sup>

이래서 先驗的 構想力은 覺知와 再現의 綜合을 가능하게 하며 현재와 과거의 통일로서의 時間의 근원이기도 한 것이다.

다. 概念에 있어서의 再認識의 綜合(Synthesis der Rekognition im Begriff)

직관적 表象의 성립을 위해서 주어진 다양을 종합하는 覺知의 綜合은 계기적으로 주어지는 인상을 마음속에 다시 떠올리는 再現의 作用과 不可分의 관계에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한 表象을 再現했을 때 그것과 앞서 지각된 表象이 동일하다는 意識이 없다면, 表象들의 系列에 있어서 모든 再現은 불가능하다<sup>56)</sup>.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覺知의 綜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構想力의 再現의 綜合을 상정하였다. 그러면 再現의 綜合은 어떻게 하여 가능한가? 여기에서 Kant는 概念에 있어서의 再認識의 綜合을 찾아내게 된다. 즉 再認識의 綜合이란 이미 사라진 印象을 마음속에 再現 했을 때, 이 再現된 表象과 이전의 表象이 동일하다는 것을 再認識하는 作用을 말한다. 再認識의 綜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意識의 同一性이 전제되어야만 한다<sup>57)</sup>. 만일 이 同一性이 없다면, 再現된 表象이 이미 사라진 表象과 동일하다는 것을 再認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意識의 同一性이 전제되지 않으면 대상의 認識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再認識의 作用에 의해 처음으로 再現된 것이 현재의 表象과 결합되어 하나의 直觀的 表象으로 통일되는 것이다<sup>58)</sup>. Kant는 '셈작용'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한다. 「만약 수를 헤아릴 즈음에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른 단위들을 내가

55) *Ibid.*, S. A. 102.

56) *Ibid.*, S. A. 103.

57) 한단석(1987), 전제서, p. 125.

58) Kant(1956), *op. cit.*, S. A. 103.

順次的으로 보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단위들을 하나씩 계기적으로 보탬에 의해서 量이 생긴다는 것을 認識하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나는 數도 認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數의 概念은 이와같은 綜合과 統一의 認識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sup>59)</sup>.

再認識의 綜合은 概念에 의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認識은 概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形式上으로 概念은 항상 어떤 보편적인 것이요, 가령 概念이 생각하는 바 多樣的 統一로서의 물체의 개념은 우리가 외적 현상들을 인식하는데 대한 규칙이다. 허나 이런 개념은 그것이 주어진 현상들에 있어서 直觀의 다량의 필연적인 再現을, 따라서 직관적 의식에 있어서의 종합적 통일을 현시함에 의해서만, 직관들의 규칙일 수가 있다. 가령 물체라는 개념은 外在하는 어떤것을 지각할 무렵에 연장의 표상을 필연적이도록 한다」<sup>60)</sup>. 따라서 대상이란 개념이 그것에 관해 필연적인 종합을 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필연성의 根底에는 항상 先驗的 조건이 있는데 이 先驗的 조건을 Kant는 「先驗的 統覺」<sup>61)</sup> (transzendente Apperzeption) 또는 「純粹統覺」<sup>62)</sup> (reine Apperzeption)이라고 칭한다. 直觀들의 多樣을 종합할 때나 「객관들 일반」의 概念들을 종합할 때, 그리고 經驗의 대상들을 종합할 즈음에도 意識의 통일이라는 先驗的 根據가 있어야 하며 어떠한 認識도 意識의 통일 없이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先驗的 統覺이 모든 再認識의 궁극적 조건이며 思惟形式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다. 直觀에 의해 주어진 多樣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대상의 表象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多樣이 先驗的 統覺 아래에서

---

59) *Ibid.*, S. A. 103.

60) *Ibid.*, S. A. 106.

61) *Ibid.*, S. A. 107.

62) *Ibid.*, S. A. 107.

통일되어 짐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Kant는 「純粹 統覺은 모든 가능한 직관의 다양에 종합적 원리를 주는 것이다.」<sup>63)</sup>라고 했다. 즉 이 말은 주어진 모든 多樣을 낱낱으로 의식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인 통일을 한 후에 전체적인 形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선을 그어서 어떠한 形象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선의 부분 부분을 모두 흩어진 상태로 의식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形象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전체적인 형상이 가능 하려면 선의 각 부분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우리의 의식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先驗的 統覺에 의한 질서있는 다양의 종합적 통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 3. 先驗的 統覺과 構想力

지금까지 우리는 카테고리의 先驗的 演繹의 문제를 構想力에 의한 覺知, 再現, 再認識의 종합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이러한 종합이 가능했던 것은 直觀의 多樣에 통일을 주어 대상을 성립케 하는 先驗的 統覺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統覺이란 무엇인가? 統覺은 思惟作用의 기본이 되는 「나는 생각한다」는 자기 意識이다.<sup>64)</sup> 直觀에 의하여 주어지는 모든 다양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하나의 자기의식속의 先驗的 統一에 의해 하나의 대상의 형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상의 표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先驗的 統覺에 의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관은 표상에 다양을 주지만 이 직관내에 받아들인

63) *Ibid.*, S. A. 110.

64) *Ibid.*, S. B. 132.

多様으로 하여금 “必然性”을 가지게 하는 自發性을 가진 것이 統覺 이라는 것이다<sup>65)</sup>. 이 必然性은 우리의 意識이 일정한 필연적인 규칙을 쫓아서 直觀의 多様을 통일하여 감으로써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統覺은 先驗的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모든 認識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先驗的 統覺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앞서서도 서술하였듯이 先驗的 統覺에 의해 直觀에 주어진 상호 분산된 表象이 일개의 자각의 意識 아래에 속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통일적인 것으로 表象된다. 그리고 意識의 同一性으로 인해 直觀에 주어지는 多様な 表象이 종합 통일되어 자각의 意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統覺의 통일을 Kant는 자기 意識의 先驗的 統一이라고 하여 先驗哲學의 최고 지점이라고 했으며 統覺의 능력을 悟性 그 자체로 보고 있다. 즉 「순수통각은 가능한 모든 직관에 있어서의 다량의 종합적 통일의 原理를 제공」<sup>66)</sup> 하는데 종합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感性의 작용보다 悟性の 작용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Kant는 「悟性 자신은 틀림없이 先天的으로 결합하는 능력이요, 주어진 表象들의 多様을 統覺의 통일아래 포섭하는 능력이다. 統覺의 원칙은 全 人間認識의 最上 原則이다」<sup>67)</sup>고 한다.

先驗的 統覺의 先天的 原則에 의한 종합적 통일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先驗的 統覺과 構想力과의 關係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構想力에 의한 三種의 綜合過程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모든 綜合은 그 근원에 先驗的 統覺의 作用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도 알았다.

構想力의 作用이란 사라진 表象을 再現하는 綜合이었지만 그 외 覺知의 綜合이나 再認識의 綜合 역시 構想力의 作用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다. 또한 근

65) *Ibid.*, S. A. 104.

66) *Ibid.*, S. A. 117.

67) *Ibid.*, S. B. 136.

원적으로 형상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종합작용을 하기 때문에 算出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再現的 構想力의 근원에는 産出的 構想力(produktive Einbildungskraft)<sup>68)</sup>의 작용이 있는 것이다. 「構想力의 작용에 의해 대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지 再現에 불과한 대상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再現된 表象과 지금 있는 表象과의 종합작용이 필요하다. 이 종합하는 방식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先天的 法則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역할이 바로 純粹統覺의 작용이다. 先驗的 統覺은 모든 대상이 여기에 집중하여 비로소 認識의 통일을 얻어서 하나의 가능한 形象이 되는 점」<sup>69)</sup>이다. 그런데 統覺에 의한 先驗的 統一이 綜合的 統一이 되기 위해서는 構想力의 作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統覺은 統一의 능력이지만 構想力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Kant는 「이 [직관의 다양의](sic) 종합적 통일은 종합을 전제하는 것이거나 혹은 종합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가 先天的으로 필연일 것이라면, 후자도 先天的 綜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統覺의 先驗的 統一은 인식에 있어서의 다양의 모든 종합을 가능케 하는 선천적 제약으로서의 構想力의 純粹綜合에 상관한다. 그러나 構想力의 産出的인 綜合만이 先天的으로 성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再生的 綜合은 經驗의 制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構想力이 산출적 종합의 필연적 통일이라는 원리는 統覺에 앞서서 모든 認識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다」<sup>70)</sup>. 즉 構想力의 綜合은 統覺에 선행하므로 直觀的 表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構想力의 算出的 作用 역시 先驗的 統覺의 先天的인 規則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先驗的 統覺의 統一이야말로 모든 經驗을 낳게 하는 근원임을 알 수 있다. 「統覺의 근원적 통일이 모든 認識 可能性의

68) *Ibid.*, S. A. 123.

69) *Ibid.*, S. A. 116.

70) *Ibid.*, S. A. 118.

根低에 있으므로 構想力의 綜合에 대한 先驗的 統一은 모든 가능한 認識의 純粹한 形式이요, 이 純粹한 形式을 통해서 가능한 經驗의 모든 대상이 先天的으로 表象된다」<sup>71)</sup>.

構想力의 綜合에 關係하는 統覺의 統一은 悟性이다. 그리고 「構想力의 先驗的 綜合에 關係하는 統覺의 統一은 純粹한 悟性이다」<sup>72)</sup> 즉 直觀의 多樣을 통일하는 自發性的의 작용이 先驗的 統覺에 근거하는 이상 그것은 곧 自發性的의 능력으로서의 悟性 그 자체인 것이다.

「인간의 經驗的 認識力은 반드시 悟性을 포함하며 悟性은 直觀과 構想力에 의한 直觀의 綜合을 매개함으로써만 感性的의 모든 대상과 관여하고, 모든 現象은 可能的 經驗에 대한 所與로서 悟性에 종속된다. 즉 純粹 悟性은 카테고리를 매개로 한 모든 經驗의 形式的이고 綜合的 原理이며, 現象은 悟性和 필연적인 關係를 맺게 되는 것이다」<sup>73)</sup>.

이렇게 해서 우리 認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관에 의해 주어진 다양성 悟性의 作用에 의해 종합, 통일됨으로써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카테고리란 悟性의 판단기능으로써 「判斷이란 주어진 認識에 통각의 객관적 통일을 가져오는 방식」<sup>74)</sup>이기 때문에 직관의 다양성 통각에 의해 종합통일 되는 방식도 이 悟性의 판단기능에 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카테고리가 주어진 직관의 다양성 판단의 기능으로 관계하는 한 Kant의 一元論으로의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純粹 構想力에 의한 對象의 綜合, 근원적 統覺에 關係된 모든 表象의 統一에 의해 대상에 있어서의 客觀的 妥當性을 이해하려고

---

71) *Ibid.*, S. A. 118.

72) *Ibid.*, S. A. 119.

73) *Ibid.*, S. A. 119.

74) *Ibid.*, S. A. 141.

한 「카테고리의 先驗的 演繹」은 성취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Kant가 종합의 근간적인 원천이 構想力인지 悟性인지를 정확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初版에 의하면 構想力이란 感性和 悟性으로 환원될 수 없는 능력으로서 모든 종합의 근간적인 원천이라고 했는데, 再版에서 보면 종합의 원천이 悟性으로 이동하여 構想力의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즉 悟性은 先天的으로 결합하는 능력이요, 悟性이 일반적으로 종합작용을 하는 것으로 된 것이다. 또 再版에서 Kant는 構想力을 형상적 종합이라 하여 직관 일반의 다양에 관하여 한갓 범주 중에서 생각되는 悟性의 결합인 지성적인 종합과 구별하여 구상력의 독립성을 부정하게 된다.

하이데거의 경우는 종합의 근원을 悟性으로 보았던 再版보다는 先驗的 構想力이 Kant의 先驗的 주관의 유일한 본질을 근원적으로 규정하는 능력으로 해석한 初版의 先驗的 演繹을 더 중시하게 된다<sup>75)</sup>.



75) 최재희(1980), 「선험적 구상력의 근원적 특성」, 박영사, p. 40.  
Cassirer와 Levy는 칸트가 선험적 구상력에서 후퇴했다는 하이데거의 해석에 반대했다.

## IV. 構想力과 圖式

### 1. 先驗的 構想力과 圖式

Kant는 經驗을 가능하게 하는 先天的 제약으로서 感性的 直觀形式으로서의 時間,空間과 悟性的 先天的 概念으로서의 카테고리틀 들고 있다. 그리고 構想力에 의한 종합작용과 覺知,再現,再認識 등의 綜合, 그리고 統覺의 근원적인 종합적 통일 작용을 통해 모든 經驗에 타당한 것임을 논했다.

그런데 카테고리의 先天的 妥當성에 대해 논증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의 經驗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圖式論이다.

Kant가 설정한 圖式論은 悟性的 先天的 概念을 究명한 「概念의 分析論」으로부터 이 概念의 실재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탐구하는 「原則의 分析論」에로의 전환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圖式(schema)이란 算出的 構想力의 產物<sup>76)</sup>로서 感性和 悟性を 매개하는 매개의 역할에 의해서 카테고리의 경험 가능성을 증명하여 주며, 또한 카테고리의 客觀的 妥當성을 定礎하여 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圖式은 先驗的 構想力의 작용에 의거하고 있다. 構想力이란 時間의 “多樣을 종합하는 활동적인 능력”으로서 그 종합 활동으로 인해 形象을 만드는데, 이 表象을 종합하는 방식이 곧 圖式인 것이다. 그러나 종합 일반은 構想力의 作用이긴 하나 悟性を 떠

76) Kant(1956), *op. cit.*, S. B. 179.

난 構想力 자체는 무의미하다. 構想力의 綜合이 認識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悟性의 範疇에 적응하여 多樣을 종합하여야 한다. 이때 비로소 悟性이 感性化 되며 範疇가 感性의 形態에 있어서 작용한다. 즉 悟性의 範疇에 적응하여 多樣을 종합할 때 構想力은 종합의 認識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를 形象的 綜合(先驗的 綜合)이라 한다<sup>77)</sup>.

Kant에 있어서 表象이란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능력으로서 直觀에 주어진 것의 종합을 말한다. Kant는 표상들과 관련하여 覺知, 再現, 再認識의 綜合을 드는데 이 3종의 종합을 構想力의 활동이라 한다. 이 종합에 의해 構想力은 現象을 悟性에로 연결시키는 매개의 역할을 구현하는데 이 것이 바로 圖式이다.

따라서 판단은 悟性의 綜合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構想力은 그것의 종합으로써 圖式化할 뿐이다. 그리하여 圖式은 構想力의 綜合의 결과요, 構想力의 綜合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構想力의 產物이다.

Kant의 圖式論은 카테고리 現象 적용의 문제 가능에 있어 어떻게 하여 經驗的(感性的) 直觀이 전적으로 이중적인 순수 오성개념 속에 포섭될 수 있는가 하는 포섭의 문제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Kant의 생각은 「悟性의 純粹한 概念은 經驗的 直觀과 비교해 보면, 이것과는 전혀 異種的이요 어떠한 直觀에 있어서도 발견될 수 없다. 그런데 대상을 한 概念 밑에 포섭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 대상의 表象과 概念은 同種的 이어야만 한다」.<sup>78)</sup> 가령 접시라는 경험적 개념과 원이라는 순수한 기하학적 개념은 서로 동종적인데 이것은 접시에서 사유되는 (동그라움)이, 원이라는 기하학적 개념에서 직관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양자의 중간에 한편으로는 카테고리과 다른 한편으로는 形象과 동종

77) *Ibid.*, S. B. 151.

78) *Ibid.*, S. B. 176.

적인 제삼자가 있어서 現象을 카테고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Kant는 이 제삼자를 圖式이라 부르고 있다. 즉 한 방면에서는 지성적이며 다른 방면에 있어서는 感性的인 대개적 表象인 圖式<sup>79)</sup>을 끌어들이므로써 悟性的인 純粹한 概念 속에 經驗的인 直觀이 포섭됨을 설명하려 했다. 그런데 이러한 圖式的 근원은 時間이다. 時間은 範疇처럼 純粹한 것인 동시에, 直觀的인 것의 形式으로서 經驗的인 모든 所與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時間은 모든 現象 일반의 先天的인 制約이며 결국 카테고리는 時間과 결합함으로써 圖式化되는 것이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카테고리의 現象에의 적용은 悟性概念的인 圖式인 先驗的인 時間規定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圖式的 概念은 이상만으로는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Kant가 제안한 圖式的 概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0)</sup>.

- (1) 圖式은 時間과 관련해서 「先驗的인 時間規定」(A 138/B 177) 혹은 「範疇의 時間에 따라 「時間系列, 時間內容, 時間順序, 時間總合」(A 145/B 185) 이다.
- (2) 圖式은 「純粹인 悟性概念的인 圖式」(A 140/B 179)이다.
- (3) 圖式은 그 자체로 「構想力의 產物」(A 140/B 179)이며 經驗을 철자화 하는데 쓰이는 「構想力의 文字」(A142/B180)이다.
- (4) 圖式은 「純粹인 悟性 概念에게 對象에의 關係, 즉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하고 참된 조건」(A 146/B 185)이다.
- (5) 圖式은 그것을 통해 무엇이 주어질 수 있는 「判斷力의 條件」(A 247/B 384)이다. 만일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포섭은 실패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圖式的 概念을 정리해 보면 우선 圖式은 카테고리에

79) *Ibid.*, S. B. 177.

80) 강영안(1987), “대개와 의미”, 철학연구, 24집, P. 186.

의한 先驗的 時間規定이며, 産出的 構想力의 産物이라는 점이다. 構想力은 圖式의 산출을 통해 카테고리의 현상에의 적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圖式은 매개의 역할에 의해 카테고리를 感性化 함으로써 現象一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로 인해 카테고리는 '經驗的' 의미를 얻게 된다.

## 2. 圖式과 形象

Kant는 形象과의 구별을 통해 보다 확실히 圖式의 의미를 설명한다. Kant는 상이란 특정한 성질을 가진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概念은 어떤 특정의 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버클리적인 생각을 이해하고 있었다. 「가령 내가 다섯개의 (.....)점을 차례로 찍는다면 이것은 다섯개란 수의 形象이다. 이에 대해 만일 내가 다만 수 일반을 -다섯도 백도 될 수 있는- 생각한다면, 이런 사고는 일정한 概念에 따라 하나의 집합량(예컨대 千)을 形象으로 나타낸 방법[규칙]에 관한 表象이고, 形象 자체는 아니다. 천(千)의 경우에 있어서 나는 그 現象을 전망하기가 어렵고, 그 形象을 概念과 비교하기가 힘들 것이다.」<sup>81)</sup> 따라서 圖式은 그 자신으로는 構想力의 所産이므로 한 概念에다 形象을 부여하는 (즉 概念을 感性化하는) 構想力의 일반적 방법의 表象을 概念에 대한 圖式이라고 한다<sup>82)</sup>. 다시 말해서 圖式이란 純粹한 感性的 概念의 기초에 있으면서 形象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表象인 것이다<sup>83)</sup>.

Kant에 의하면 「形象은 産出的 構想力이라는 經驗的 能力의 産物이고, (空間에 있어서의 도형으로서) 感性的 概念의 圖式은 純粹한 先天的인 構想力의 산물이며 純粹한 構想力의 略圖」<sup>84)</sup>라는 말로 形象과 圖式의 구별을 설명한다.

81) Kant(1956), *op. cit.*, S. B. 179.

82) *Ibid.*, S. B. 179.

83) *Ibid.*, S. B. 180.

84) *Ibid.*, S. B. 180.

形象이란 것은 말 그대로 대상의 형 혹은 모습이다. 예컨대 삼각형의 경우 어떠한 形象도 삼각형 일반의 概念에 완전히 합치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直角 三角形이든 鈍角 三角形이든 三角形의 概念은 모든 삼각형에 보면 타당한 것이지만 形象은 삼각형 분야의 일부분에 제한되어 있어 그러한 普遍性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85)</sup>.

우리가 일정한 삼각형의 形象을 떠올렸다고 그것이 삼각형 일반의 概念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삼각형의 形象을 매개로 삼각형 일반의 概念을 이해할 수는 있다. 즉 우리는 삼각형의 形象을 생각하기 이전에 삼각형 일반이라는 概念을 表象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삼각형의 概念 根底에 삼각형의 圖式이 있기 때문이다. 이 圖式은 카테고리에 의한 算出的 構想力이 갖는 綜合規則임을 의미하며 이로써 개념은 圖式에 의해 感性化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각형과 같은 先天的 概念과 그 形象은 합치할 수 없다. 그러면 經驗의 대상 혹은 그 形象 역시 經驗的 概念과 합치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도 역시 Kant는 圖式的 역할없이 경험적 개념과 형상은 합치할 수 없다고 본다. Kant는 개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 개의 경우 한마리의 지각된 개는 그 개의 形象이지만 그것만으로 「나의 構想力이 그것에 쫓아서 어떤 네발 짐승의 形態를 일반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하는 규칙」<sup>86)</sup>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한마리의 개의 形象은 그러한 것의 多樣性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개의 概念에서 表象하는 것이고 여기에 概念의 感性化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圖式的 역할은 개의 가능한 범위를, 엄밀히 말하면 어떤 것이 개와 상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여져야 된다는 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圖式에 의해서만 항

---

85) *Ibid.*, S. B. 180.

86) *Ibid.*, S. B. 180.

상 概念과 결합해야 하고, 그 자체로는 概念과 완전히 합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87)</sup>. 이렇게 Kant는 경험적 개념의 根低에 또한 오성의 순수개념의 圖式이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悟性的 純粹한 概念」의 圖式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다. Kant는 「悟性的 純粹한 概念」의 圖式은 어떠한 形象도 될 수 없는 것이고 範疇가 나타나는 概念一般이 쫓는 바, 통일의 규칙에 따른, 純粹한 종합일 뿐이며 構想力의 先驗的 소산이라고 하면서 「純粹悟性概念의 圖式은 ..... 구상력의 先驗的 산물이어서 여러 표상이 통각의 통일에 따라서 先驗적으로 하나의 개념에서 관련되어야 하는 만큼, 모든 표상에 관한 時間이라는 內感形式의 制約에 따라서 內感一般을 규정하는데 관계한다」<sup>88)</sup>고 말한다. 시간은 내적 현상의 형식이며, 모든 표상은 그 자체가 마음의 규정으로서 내적현상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카테고리의 현상 일반에의 적용, 즉 카테고리의 圖式化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Kant는 모든 概念의 圖式根低에 가장 기본적이며 그것에 의해서는 직접적으로 形象을 만들어 낼 수 없는 先驗的 圖式이 있음을 주장한다. 先驗的 圖式 역시 圖式과 마찬가지로 算出的 構想力의 종합적 소산이다. 先驗的 圖式은 카테고리와 直觀形式을 결합하는 매개역할을 하며 時間과 결합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先驗的 시간한정의 다른 것이 아니다. 직관형식인 시간과 공간중, 공간은 모든 현상에 타당하지가 못하다. 공간적 규정을 갖지 않은 현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현상에 대하여 타당성을 가진다. 시간적 규정을 갖지 않은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Kant는 先驗的 圖式은 시간과의 관련에서 생겨난 것이라 생각하고 카테고리에 의한 先驗的 時間限定 이

87) *Ibid.*, S. B. 180.

88) *Ibid.*, S. A. 142, S. B. 181

라고 한다.<sup>89)</sup> 이 先驗的 時間規定은 「그것이 보편적이고 先天的 규칙에 의거하는 한, (시간규정의 통일을 성립시키는) 카테고리와 同種的이다. 그러나 他面에서 보면 時間多樣的 모든 經驗的 表象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現象과 동종이다」<sup>90)</sup>. 따라서 카테고리를 現象에 적용시키고 카테고리 속에 現象을 포섭하는 것은 先驗的 時間規定, 즉 先驗的 圖式的 매개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 3. 範疇의 圖式化

Kant는 構想力이 先驗的 종합을 「感性에 대한 悟性」의 작용이라 하여 悟性의 圖式性을 통해 自發性의 능력이 感性을 지배하게 됨을 밝힌다. 우리는 感性의 촉발을 받아 경험적 대상, 즉 現象을 직관하지만 경험적 表象을 받아 들이는 이 수용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정리되고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悟性能力이며 이 悟性概念은 곧 圖式으로서의 카테고리다. 그러나 悟性의 實際化 또한 感性의 제한을 받아 가능하며, 悟性의 실제화는 바로 카테고리의 실제화인 동시에 感性의 제약이다. 이 感性의 고유한 제약이 바로 時間인 것이다.

圖式은 카테고리에만 關係하며 각 카테고리는 構想力에 의하여 感性化 함으로써 그 實在性을 구현 하는데, 여기서 感性化한 純粹 範疇를 圖式化된 範疇라고 한다.

우선 純粹悟性概念, 즉 카테고리의 表와 그 圖式을 살펴보기로 하겠다<sup>91)</sup>.

---

91) *Ibid.* S. B. 202. 각주, 129.

判斷形式	悟性的 純粹概念	圖 式	時間規定
量	單一性 數多性 全體性	數	時間系列
質	實在性 否定性 制限性	度	時間內容
關係	實體와 偶有性 因果性 相互性	持續性 規則에 따른 後續 實體의 規則的인 同時存在	時間順序
樣相	可能性과 不可能性 存在와 非存在性 必然과 偶然性	時間內的 可能性 一定한 時間中에 現存 모든 時間中의 現存	時間總括

<量的 圖式>

量에 대한 先驗的 圖式은 數이다. 數란 하나에다 하나를(동종적인 단위들을) 연속해서 더하는 것을 포괄하는 表象이며 동종적인 直觀 일반의 多樣한 종합적 통일이다<sup>92)</sup>. 知覺에 주어진 대상은 오직 그것의 量으로서 다른 量들과 비교될 수 있을 경우에, 다시 말해 측정될 수 있을 경우에 量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측정은 時間內的 연속적인 단위의 증가를 뜻한다.

Kant에 의하면 「數에 의한 통일은 直觀의 覺知에 있어서 時間 자체를 내가 생산하는데 기인한다」<sup>93)</sup>. 즉 時間 자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동종적인 直觀 일반의 多樣을 연속해서 순차적으로 부가해야 하는데 여기에 量의 圖式인 수가 필요한 것이다. 이 圖式은 시점 a에서 b로, b에서 c로, 또 d로 이행하는 時間系列과 關係한다.

92) *Ibid.*, S. B. 182.

93) *Ibid.*, S. B. 182.

#### <質의 圖式>

質에 대한 範疇의 先驗的 圖式은 度의 程度이다. Kant는 「悟性的 純粹概念에 있어 實在性이란 감각 일반에 대응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時間에 있어서) 실재하는 것임을 지지한다」<sup>94)</sup>고 지적했다. 實在性과 不定性的의 차이는 時間이 충실된 것이냐 공허한 것이냐를 구별하는 감각의 유무에 있으며 여기에서 감각이란 각기 度나 量을 가지고 있다. 度나 量에 의해서 감각은 동일한 時間을 감각이 없음에 이르러 끝날 때 까지 다소간 메꿀 수가 있다<sup>95)</sup>. 여기에 實在性에서 不定性으로 이르는 이동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知覺은 강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감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實在性的의 圖式化된 範疇는 감각이 어떤 정도의 度를 가진 한 어떤 감각을 지시하며 時間에 있어서의 實在性的의 連續的, 同形的 算出이다. 이것은 우리가 時間에 있어서 일정한 度를 가지는 감각에서 그것의 消滅點까지 내려가거나, 度의 부정에서 감각의 어느 量까지 점차로 올라가거나 하기 때문이다.」<sup>96)</sup> 즉 度란 어떤 감각의 강도의 정도가 영 (Zero)으로 부터 시작하여 동종적인 것을 時間속에 연속적으로 부가하는 것으로 이 圖式은 時間內容과 관련이 있다.

#### <關係의 圖式>

關係의 카테고리에 대한 樣相의 先驗的 圖式을 보면 수와 度라는 量과 質에서의 先驗的 圖式과는 달리 實體性, 因果性, 相互作用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한 圖式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실체의 先驗的 圖式은 「실재적인 것의 時間에 있어서의 持續性, 즉 時

94) *Ibid.*, S. B. 182.

95) *Ibid.*, S. B. 182.

96) *Ibid.*, S. B. 183.

間的 永遠性」<sup>97)</sup>이다. 다시말해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그 자신은 현존중의 不變者라는 것이다. 因果性的 先驗的 圖式은 「한 실재적인 것이 임의로 정립된다면 항상 다른 무엇이 그것에 계기하는 그런 실재적인 것」<sup>98)</sup>이다. 이 圖式은 多樣的 계기중에 존립한다.

상호성의 先驗的 圖式은 「한 실체의 규정과 다른 실체의 규정이 보편적 원칙에 따라 공존하는 것」<sup>99)</sup>이다. 關係의 圖式은 時間順序와 關係한다.

#### <樣相의 圖式>

樣相의 카테고리(可能性, 存在性, 必然性)의 先驗的 圖式은 다음과 같다.

가능성의 先驗的 圖式은 時間內的 可能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表象들의 종합을 時間 일반의 종합과 합치 시키는 것이며 한 사물의表象을 어느 한 時間 중에서 규정한다는 것」<sup>100)</sup>이다. 存在性的 先驗的 圖式은 「일정한 時間 중의 現存」<sup>101)</sup>이며 必然性的 先驗的 圖式은 「모든 時間에 있어서의 한 대상의 존재」<sup>102)</sup>이다.

樣相의 圖式은 現象들의 時間經過 중에서 서로 달리 總括된다는 時間總括과 關係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Kant의 圖式化된 카테고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카테고리가 圖式化되기 위해서는 時間과 결합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量, 質, 關係, 樣相의 範疇가 時間과 상관함으로써 時間系列, 時間內容, 時間順序, 時間總括<sup>103)</sup> 등의 圖式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직관의 대상의 성립을 위해서는

97) *Ibid.*, S. B. 183.

98) *Ibid.*, S. B. 183.

99) *Ibid.*, S. B. 184.

100) *Ibid.*, S. B. 184.

101) *Ibid.*, S. B. 184.

102) *Ibid.*, S. B. 184.

103) *Ibid.*, S. B. 185.

카테고리가 직관의 대상에 적용되어야 하며 感性化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즉 카테고리의 圖式化는 카테고리의 경험에의 객관적 타당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앞서 「先驗的 演繹」에서 논한 내용의 재 강조가 되겠다.

그런데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Kant는 純粹悟性 概念을 現象 一般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험적인 직관을 純粹悟性概念 속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제 삼자인 時間 즉 先驗的 圖式을 내세운다. 범주 그대로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경험에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悟性的 순수한 개념들은 經驗的 直觀, 感性的 直觀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른 것이어서 어떤 직관에서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에서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圖式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先驗的 구상력의 소산이다. Kant가 무엇보다도 매개체로서의 圖式의 역할을 중요시 설명하지만 아직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것은 개별적인 형상을 算出하고 그것과 純粹悟性概念과의 사이에 圖式이 先驗的 時間限定을 토대로 하여 양자를 매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여 그것이 동종적인가 하는 것은 자세히 밝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고 개념에 형상을 부여하는 방법이 圖式이라면 Kant가 제시한 12개의 범주에 같은 수의 圖式, 즉 質, 量, 關係, 樣相의 範疇에 각각 세개씩의 圖式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Kant는 이 圖式의 설명에 있어 질서 정연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실재성의 圖式, 必然性的 圖式등으로 분류하였을 뿐이며 그것들의 설명도 지극히 애매하다. 예컨대 실재성의 圖式의 경우 그것이 圖式이기 보다 실재성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 볼 수 있다. Kant가 이것을 굳이 실재성의 圖式이라고 주장한다면 Kant는 실재성의 카테고리과 실재성의 圖式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다. 또한 Kant는 再版에서 「悟性的 圖式性은 先驗的 綜合에 의하여 內官에 있어서의 직관의 모든 다양의 통일과 따라서 간접적으로 내관에 대응하는 기능으로서의 통각의 통일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즉 純粹悟性概念의 圖式은 純粹悟性概念에 객관과의 관계를 주고 따라서 이것에 의의

를 주는 진정하고 유일한 제약이다。」고 했다. 간혹 학자들은 이 말을 해석함에 있어 구상력의 先驗的 종합이라 그것에 의한 다양의 통일이나 또 내관에 대응하는 것으로 통각의 통일이나 悟性概念의 演繹때에 Kant가 신중을 가했을 용이일 뿐 아니라 「悟性概念에 객관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圖式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圖式을 새로운 형태의 悟性概念의 演繹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단정하고 있다.



## V. 結 論

지금까지 認識論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轉回를 이룩한 Kant의 비판철학 속에서 經驗 可能性의 선천적 조건들과 그것의 객관적 타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즉 必然성과 普遍성을 내포한 先天的 綜合判斷의 可能性의 제시와 感性和 悟성에 의한 認識의 성립, 그리고 悟성의 先天的 認識의 認識 形式인 카테고리 의 客觀的 妥當性を 考察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테고리의 객관적 타당성의 증명에는 構想力의 종합 작용과 先驗的 統覺의 규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構想力의 작용과 先驗的 統覺의 작용은 Kant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의 문제를 해결 해준 열쇠라고 볼 수 있다.

構想力은 직관에 의해 주어진 다양을 종합하는 활동으로서 悟性和 感性的의 알 수 없는 근원이라고 간주될 만큼 근원적인 것이다. 構想力의 純粹綜合의 필연적 통일의 원리는 統覺에 선행하여 모든 認識, 즉 經驗의 可能性의 근거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근원성을 인정하다 보면 구상력의 종합작용이 悟성의 작용의 일종이며, 그것은 悟성이 직관적 대상을 성립시키는 곳에서 작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는 「純粹理性批判」의 再版에서의 Kant의 주장은 혼란에 빠지고 만다. 再版에서 Kant는 構想力을 悟性和 感性的을 매개하는 제 3의 능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悟성의 低次元的인 작용으로 생각하여 構想力의 독자적인 근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先驗的 演繹의 선두에서 모든 종합이 悟性으로 부터 나온다는 말은 아마도 悟성의 종합 없이는 구상력의 종합

을 행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Kant는 모든 경험을 낳게 하는 근원으로 통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각이란 「나는 생각한다」라는 자기의식의 先驗的 통일으로써 통각의 통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상력의 종합 작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Kant는 統覺의 통일을 悟性이라 함으로써 구상력의 작용과 悟性의 작용의 이해에 애매함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悟性의 종합과 구상력의 종합 역시 통각의 통일을 전제하고 있고 우리의 인식을 성립 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두 종합을 제거해 버릴 경우에 우리는 카테고리의 객관적 타당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悟性의 作用이란 구상력으로서의 悟性의 작용이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떠한 認識이 성립 될지라도 거기에는 構想力으로서의 悟性의 작용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카테고리의 대상에의 適用 可能性을 논하기 위해 카테고리의 感性化를 가져오는 感性和 悟性의 매개체로서의 圖式을 전제하는데 이때 圖式은 순수범주를 각각의 경우마다 時間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도출되며 時間은 感性的인 동시에 先天的이므로 양자의 매개가 가능하며 카테고리의 경험에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純粹理性批判」중 카테고리의 先驗的 演繹에 관해 논해 보았다. 때때로 카테고리의 객관적 타당성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Kant의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은 形而上學의 學的 定立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아직 확실히 인정되지 않은 카테고리의 객관적 타당성 문제를 증명하는 것이 필자의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 Ⅵ. 參考文獻

- 단 행 본 -

- Ayer, A. J. and Winch, R(1965), *British Empirical Philosophers*, London.
- Cassirer, H. W(1954), *Kant's First Critique*, London.
- Ewing, A.C(1970),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 Kant, I(1956),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Verlag, Hamburg.
- Paton, J(1970), *Kant's Metaphysic of Experience, Vol. I, Vol. II*, New York.
- Weldon, T. D(1945), *Critique of Pure Reason*, London.
- Wilkerson, T.E(1976),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Oxford.
- 강영계(1983), 「Kant의 비판철학」, 서광사.
- 김상봉(1985), 「純粹理性批判 입문」, 혼겨레.
- 배학수(1987), 「Kant의 純粹理性批判」, 서광사.
- 崔載喜(1980), 「Kant의 純粹理性批判 연구」, 박영사.
- 韓端錫(1983), 「Kant철학 사상의 이해」, 양영각.
- 田元培(1982), 「純粹理性批判」, 삼성출판사.

- 논 문 -

- 강영안(1987), "매개와 의미", 「철학연구」, 24집.

- 김영례(1991), "Kant에 있어서 先驗的 認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 대학교 대학원.
- 최일운(1965), "純粹理性批判의 비판", 「철학연구」, 제2집.
- 하순애(1980), "Kant의 圖式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제5집.
- 하영석(1987), "비판적 선형철학의 과제", 「철학연구」, 제24집.
- 한단석(1979), "Kant에 있어서 카테고리의 圖式性", 李奭熙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 \_\_\_(1987), "Kant에 있어서 인과율의 원칙", 閔東根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

Abstract

A study on Transcendental Deduction  
of categories in Kant

**Hong Il Sim**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eo Jeong Hoon**

Kant reconized that the 'cognition' has not the experimental origin but has the object orderly by the subjective cognitive form which involves in itself.

In his [Critique of Pure Reason],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possibility of the cognital synthetic judgment. The cognitive form of empiricism and rationalism hitherto can't explain the necessity and generality of the cognition. Kant thought that the congenital synthetic judgement, which had the necessity and the understanding, was possible by showing the examples of the mathematical and natural scientific cognition. The pre-condition of the subject are the sense and the understanding. That is to say, the cognition of humanbeing is possibl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November, 1993.

in the cooperative working of the sense and the understanding. These include the congenital cognitive form in the name of intuition form and categories. Kant's proposition; subject is given by the sense and understanding thinks it, is faced with the problems of the objective propriety. To solve this problem, Kant had to concert new direction. He named it [Transcendental Deduction] and changed dualism into monism from then on. In other words, when the subject is given, it already connotes not only the intuition but the working of the understanding. The chaotic manifold was only given by the intuition.

So there needs synthesis working, the working of *Einbildungskraft*. The synthesis of *Einbildungskraft* is done by the priori rule, the apperception a priori. The all processes is that of categories. By doing so the understanding propriety of the objective is proved. Although it is proved, there remains a problem of the application to our experience. It is the scheme that solves this problem. The scheme, the producer of calculative *Einbildungskraft*, make the application of the categories to phenomena possible by its role of mediation. That is the bases of the subjective propriety of the categories.

In this paper, I study the synthetic work of the *Einbildungskraft*, apprehension, reproduction, recognition synthesis for the objective propriety of the categories and apperception. And I examine the process of apperception, the problems of application the scheme of categories to our experience actually.